

지역 매 아리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돕는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농업인 24명을 선정해 영농정착금을 지원 중에 있으며,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8월에 8명을 추가 선정했다.

청년창업농 선정자는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으로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3년간 정착지원금이 지원된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경영담당과 감소농 민간전문위원, 민간컨설팅전문가를 통해 청년농 선정자 32명 중 희망자인 14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분석컨설팅을 1인당 5회에 걸쳐 추진한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해 영농활동에 성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귀농인 농기계 안전 사용법 교육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김제시 귀농귀촌 안정정착교육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마케팅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22일 농기계 작동법 및 주의 사항에 관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총10회로 이루어진 귀농귀촌 안정정착 교육의 3회차 교육으로 농기계 작동법 이론 교육에 이어 현장에서 직접 관리기 조작법과 안전 사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신규 농업인이 농업에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행했다.

김태환 농업정책과장은 "안전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도 쉽고 안전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김제시보건소는 빈혈, 저체중 등 영양섭취상태가 좋지 않은 임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의 신규 대상자 180가구 217명에게 9월부터 6개월 동안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한다.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 보충을 위해 쌀, 콩, 우유, 김 등의 식품을 대상자의 가정으로 배송하며,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김제시보건소는 임신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통해 균형잡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형성을 위해 대상자별 맞춤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의 변화 이끄는 주역

국가균형발전위 '혁신가'

김제시 최종 3명 선정

강보람·김현주·이대훈



강보람



김현주



이대훈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이하 균형위)는 지난 21일 강보람고구마 강보람 대표(27), 김제노인종합복지관 김현주 사회복지사(36), 백구로컬랜드 이대훈 대표(56)를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지역혁신가'로 선정했다.

균형위에서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예술, 생태환경, 산업경영, 과학기술, 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지역혁신가를 총 58명 발굴했으며 김제시에서는 최종 3명 선정됐다.

김제 청년농업인 강보람 대표는 농업농촌분야 지역혁신가로 고구마 종자개발을 통한 골고구마를 재배해 김제 고구마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다.

특히 자신의 이름과 캐리커처를 딴 '강보람 고구마' 브랜드를 개발하고 홈페이지·SNS·기업납품 등 유통망을 확장해 2년만에 10억 매출을 달성했으며 해외수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김제노인종합복지관 김현주 사회복지사는 교육복지분야 지역혁신가로 농촌지역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활성화하는데 힘써왔다.

특히 농촌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를 개소, 실버지활을 위한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했다.

김제백구 로컬랜드 이대훈 대표는 농업농촌분야 지역혁신가로 품

질 좋은 친환경 포도 생산을 주력하는 가운데 관광의 볼모지인 김제농업을 농촌체험관광으로 승화시켜 지역사회의 6차 산업모형을 성공적으로 구축, 지역농가와 연계로 상생 발전을 실천했다.

시상은 오는 9월 6일 개최되는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균형위는 지역혁신가들의 혁신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준배 시장은 "지역발전을 이끌고 지역혁신을 주도해 나갈 핵심주체를 키우기 위해,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 누구나 지역혁신가를 꿈꿀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미래 새싹이 말하는 완주군 정책 '귀담아'

화장실 낮은 옷걸이 등 7건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키로

완주군이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반영한다.

완주군은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검토해 참여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한 아동·청소년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총 7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정책은 화장실 낮은 옷걸이 설치사업, 학교 앞 횡단보도 태양열 차단기 설치, 어린이 민원센터 설치, 청소년 공간 제작, 청소년 체육공원 조성(고정형 천막), 완주군도서관 일요일 개방, 어린이작은미술관 설치다.

선정된 이 사업들은 2019년 예산에 편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앞서 완주군은 어린이·청소년의회(어린이 의원 32, 청소년의원 22)의



완주군은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검토해 참여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한 아동·청소년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총 7건을 선정했다.

다양한 의정활동과 참여예산 정책발굴을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고, 이 결과 11건의 정책을 발굴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5대 핵심과제인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전국 단위 최초로 미래세대 주민참

여예산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며 "어린이·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는 23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관광객 중심 업그레이드 축제 만든다

김제지평선축제 추진상황 보고

전 청원 역량 결집... 준비 만전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3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양운업 문화홍보축제 실장의 축제 준비에 대한 총괄 보고에 이어 직제 순에 의한 부서별 프로그램 준비 진행 상황 보고, 축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 이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울해로 스무 해를 맞이하는 김제지평선축제는 'Beyond Korea, Global Gimje Horizon Festival'을 슬로건으로 5개 분야 66개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글로벌 축제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러시아 데이를 운영하는 등 글로벌 콘텐츠를

강화하고 임시 주차장 확대 및 셔틀버스 증차, 워터 미션 등 관광객 중심의 수동태 개선으로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지역 농·특산물을 연계한 6차 산업 선도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소비를 확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평선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축제 주요 관광객인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박준배 시장은 "지평선축제가 최근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에서 실시한 '여행 행태 및 계획조사'에서 전국 71개 지역축제 가운데 방문객 만족도 1위 축제에 선정됐다"며 "45일 앞으로 다가온 지평선축제에 전 청원의 역량을 결집해 최고의 축제를 만들어 축제를 믿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주민참여예산 19개 사업 선정

완주군 삼례읍 토론회서

7억2000만원 반영 결정

완주군 삼례읍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갖고, 총 19개 사업을 건의하기로 했다.

23일 삼례읍은 2층 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 주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삼례읍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제안사업을 결정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37개 사업 중 19개 사업, 7억2000만원을 선정했으며 2019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완주군에 요청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마을 진입로 확보장 관련 9건, 농수로 및 배수로 정비가 8

건, 마을회관 보수 시설 정비 2건 등 총 19개 사업이다.

앞서 삼례읍은 지난 3~5월 공모를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37건, 12억 5000만원 규모를 제안받아 지난 6월 22일 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평가했다.

완주군은 지난 2009년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의견을 꾸준히 반영해 왔다.

이용렬 삼례읍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민관합치 정신이 핵심으로 삼례읍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이번에 선정된 제안사업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descriptions, and contact information.